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

2013년 라디오 강론(요한계시록)

45. 다섯째 나팔

2013. 11. 10.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넷째 나팔에 대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쉽지 않지만 이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그 이후에 대한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입니다.

[계9:2,3]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3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1. 목사님, 지난 시간에 왜 사단에게 무저갱 열쇄를 주었는가 하는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번 말씀대로 우리가 그 깊은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기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계9:2의 말씀을 나눌 차례가 된 것 같습니다.

답: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살아계시고 지극히 선하시고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인에게도 인자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두시는가 하는 의문에 자주 부딪히지요. 우리가 그 대답을 다 속 시원하게 듣지 못하지만, 이 세상은 죄의 세상이고 아직은 사단이 자기 왕국이라고 주장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사망의 권세가 아직도 지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을 통하여 사망나라의 사람들을 생명으로 옮겨주시려고 하실 일을 다 하셨습니다. 이제 아직도 육체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죽어가는 것인 사람들이 의식이 있을 동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련한 생명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죽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고 돌이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 차례 드린 말씀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겔18:32) “주 여호와와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겔33:11)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는 사망 자체인 사단이 생명이시고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행사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그런 통제 받는 사실을 무저갱 열쇄를 받았더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수행하시되 온 우주와 심지어 사단에게까지 가장 합당하게 그 뜻을 수행하십니다.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115:3]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합리적이고 정당하며 자비와 사랑으로 행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예수님 재림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이 세상이 죄의 세상으로 있을 동안 우리의 삶의 궤적을 돌아보면 매 걸음마다 우리에게 가장 합당하고 유리한 길로 이끄신 하나님의 사랑의 인도를 알고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일이 의롭고 선하다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2.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2절에 그 떨어진 별이 무저갱을 엽니다. 거기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한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가르쳐주시는 것이지요?

답: 예, 참 어려운 계시입니다. 아무튼 연기가 무엇인지는 3절이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3절은 연기 가운데서 황충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연기가 황충이 나오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황충이 떼로 날라나오는 모양은 정말 연기가 뭉개 뭉개 올라오는 모습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제가 칼스베드 동굴에 갔을 때 박쥐 동굴 앞에서 박쥐가 날아 나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수만 마리 박쥐가 동굴에서 나오는 모양이 마치 동굴에서 연기가 나오는 것 같아보였습니다. 것처럼 황충이 떼로 몰려나오는 것이 연기가 솟아오르는 것 같아 보였다는 표현은 딱 맞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먼지라고 표현해도 맞을 것인데, 왜 연기라고 표현했을까를 생각해봤습니다.

3. 정말 왜 먼지같이 올라온다고 하지 않고 연기라고 했을까요?

답: 개역성경에 연기라는 표현이 대강 44회 정도 나타납니다. 그중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면들이 몇 번 있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가 좋은 상태에 대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무저갱을 열었으니까 좋은 것이 나오겠습니까. 이런 의미로 연기는 진리를 흐리게 하는 역할을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메뚜기들이지요. 황충은 메뚜기과에 속하는 곤충인데 떼를 지어 이동하기 시작하면 온 하늘을 덮어서 날아가는 지역에 해를 가리어 어둡게 하고 이것이 푸른 초목에 앞으면 농작물이나 나무가 말각게 벗겨져서 남는 것이 없게 합니다. 이것은 땅을 황폐하게 하는 재앙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 박사는 메뚜기가 떼를 이루어 날기 시작할 때의 모양을 표현했는데, “그것들은 종대로 날아가는데 그 두께가 25m 정도이고, 앞 뒤 거리는 약 6km 정도가 된다. 이런 메뚜기 떼의 구름이 나타나면 마치 일식이 일어나는 것 같다. 그래서 60m 미만에 있는 큰 건물도 알아볼 수 없게 된다. 그것들은 땅 위에 검은 암흑의 구름을 몰고 오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공기가 어두워질 수밖에 없지요. 해가 어두워진다는 것은 성경에 해는 예수님을 뜻한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이 황충들이 예수님을 가려서 세상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을 상징하지요. 그리고 공기는 사람들이 호흡하는 기체입니다. 공기가 없으면 사람들이나 코로 호흡하는 생물들은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공기가 나쁘면 호흡기 질환이 많이 생기게 되지요. 호흡은 기도를 타나내지 않습니까? 사단이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길을 막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기는 이 지구를 두르고 모든 생물들이 공기를 호흡하므로 생존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보편적 은혜를 나타냅니다. 사단이 이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4. 그런 것이 역사적 사건으로 일어났습니까?

답: 우리가 셋째 넷째 나팔에서 하늘에서 심판을 받아 땅으로 떨어져서 교회를 오류로 물들인 사실을 공부했습니다. 심판을 받은 루시퍼가 세상으로 쫓겨 와서 정치와 타협해가는 교회를 결정적으로 정교 일치하도록 밀어붙이고 교회를 진리에서 떠나게 했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서에 나타난 작은 뿔을 심판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 멸망이나 서로마제국의 멸망과 같은 멸망사건으로도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세상과 간음하는 여자가 된 교회에서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이 변질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된다는 것을 셋째 넷째 나팔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제 양면 작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면적으로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거짓 교회를 주장하여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하고, 외면적으로는 이 외형만 하나님의 교회인 조직과 대적관계의 세력을 조장하여 서로 반목하고 공격하게 하여서 사람들로 종잡을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메뚜기 떼들은 예수님을 가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공기에 공해를 일으키고 기도를 올바르게 못하도록 하는 전술을 쓴다는 말입니다.

5. 그것이 무엇이며, 무슨 사건입니까? 그렇게 변죽만 울리지 마시고 시원하게 설명하시면 좋겠습니다.

답: 시원한 것은 듣는 분들이 시원하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깨달은 대로, 기도하며 생각한 대로 말씀하는 것뿐이지요. 그것은 이슬람 세력의 등장입니다. 이슬람은 모세오경을 경전으로 믿습니다. 당연히 거기 기록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요. 그리고 엘로힘이라는 이름 대신에 알라라는 이름을 쓰는데 아마도 엘로힘이 아라비아어로 “알라”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하메드가 계시를 받고 썼다는 쿠란을 더 신뢰합니다. 이들이 일어나서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올바르게 믿는 것을 방해합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 인정하지만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가톨릭을 압박했습니다. 이 무리들은 크고 강한 군사를 일으켜서 주변 국가들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이런 사건으로 로마교회는 십자군을 동원하여 예루살렘 수복이라는 명분으로 그들과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습니다. 피차 피해가 컸지요. 오류들끼리 싸워서 피차 큰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심판의 한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은 알라라고 부르는 유일신을 믿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을 깨닫는데 연기노릇을 합니다. 성경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그들이 말하는 유일한 알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이 사람들은 안식일은 금요일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세오경은 제7일이라고 했지만 그들은 금요일을 예배일로 합니다. 내가 이 문제를 물어봤더니 이슬람에는 안식 시간은 있어도 안식일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식 시간이 금요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유대인의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기독교의 안식일은 일요일이고 이슬람의 안식일은 금요일이라고 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연기 같은 영향을 끼친 것이고 또 군사적으로 메뚜기 떼 같이 일어나 변질된 기독교인 로마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바로 해와 공기를 어둡게 했다는 상징적 표현으로 계시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6. 어렵습니다만, 그만한 이해에 이르기에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설명을 들으니 타당

한 설명이라고 동감합니다.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답: 전갈에 대해서는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갈은 언뜻 보기에는 가제 비슷하게 생긴 곤충인데, 사막 지역이나 좀 높은 지역의 돌 사이에 서식합니다. 그것은 앞발이 가제 발처럼 생겼고 꼬리에 독침이 있어서 급소에 쓰이면 목숨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사막을 여행할 때 조심해야 하는 곤충에 속합니다. 이것은 군사력에 대한 상징적 표현입니다. 연기가 황충이 떴지어 나오는 모습과 또 오류를 퍼뜨리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이고, 이것이 전갈의 권세를 받은 것은 이슬람의 군사적 행사에 대한 것이지요. 그들이 군사력으로 로마교와 주위의 나라들을 침략하고 괴롭힐 것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7. 정말 그 상징적 표현이 아주 적절하네요. 연기와 전갈, 참 듣고 보니 기막힌 상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에게 어떤 당부를 하는 것 같은데요?

답: 예, 그 구절을 한 번 읽도록 합시다.

[계9:4]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군사행동을 하지만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을 해하라고 합니다. 푸른 풀과 수목은 주석가들이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이라고 해석합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설명한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눅23:31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는 말씀에서 푸른 나무로 예수님을 표상했습니다. 그에 준해서 푸른 풀과 수목을 예수님께 붙어서 진실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세력이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들 곧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을 해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들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루시퍼의 군대들이지만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8. 여기 하나님의 인 맞은 자들은 7장의 144000명과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누구이며, 또 이슬람 군사들이 이 사람들을 해하지 않았습니까?

답: 여기 인 맞은 사람들은 144000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역사적 시기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인은 여섯째 인을 떼기 전의 역사적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인 맞은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특정한 시기와 상관없이 어느 때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사는 푸른 초목으로 상징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인을 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고 거듭난 상태로 계속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역사를 비의 역사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비가 내리면 초목이 싱싱하게 살아납니다. 이사야는 이 사실을 잘 묘사했습니다.

[사32:15]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삼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신 곧 성령을 부어주시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된다고 했지요. 광야에 초목이 무성하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밭은 삼림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밭에 있는 초목처럼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령으로 보증을 받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4:30을 읽어봅시다.

[엡4:30]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께서 그리스도인들을 구속의 날까지 성령 안에서 인 침을 받는다고 했지요. 이것이 바로 보편적인 인 침입니다. 모든 시대를 통하여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인 침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스겔 9장에도 나오지요.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데 표라는 말이 타우입니다. 그것은 히브리 자모의 마지막 글자입니다. 이 타우의 옛 글자는 십자가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마에 타우를 하라는 것은 온전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을 나타냅니다.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 희생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인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하지요. 거듭나지 않았는데 인침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다섯째 인에서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뜻합니다.(그런데 이슬람이 그 사람들을 해치지 않았습니까?) 기록에 의하면 모하메드가 기독교 문화를 접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고 또 모세오경을 기독교와 같이 경전으로 받아들였고, 다른 구약성경도 읽었기 때문에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해치지 말라고 권고했다고 합니다. 물론 다섯째 나팔 때는 모하메드가 살아 있을 때는 아니고 이슬람 군대의 사령관이 그렇게 명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슬람 군대는 유대교도들과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크게 박해하지 않은 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9. 예, 그랬군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도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괴롭게만 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답: 이것도 말씀을 먼저 읽고 이야기 합시다.

[계9:5]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무리들을 어떻게 취급할지를 지시한 것인데, 그들은 바로 변질된 기독교인 로마교의 조직과 국가들을 가리키는 상징적 표현이거든요. 이것은 이슬람 세력이 로마교를 없애지는 못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들이 로마교의 조직이나 로마교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들을 멸망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괴롭혔습니다. 그 괴롭히는 기간이 다섯 달입니다. 그 고통이 전갈에 쏘인 것과 같다고 했는데, 저는 전갈에 쏘인 경험이 없어서 그 고통의 정도를 말할 수 없지만 아마도 무척 고통스러운 것을 표현한 상징적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교의 조직이나 그들 추종하는 국가들이 이슬람의 군사적 행동으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 기간이 다섯 달입니다. 이것은 물론 예언적 기간이기 때문에 150일이고 150년이지요. 이 기간에 대하여서 몇몇

기록이 있습니다. 영국의 역사가 에드워드 기본 로마제국의 흥망사를 쓴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다니엘서 2장의 예언을 가장 간단한 말로 2500년간의 역사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했다고 말한 그 역사가이지요. 이 사람은 이 다섯 달을 이슬람 군사들이 비잔틴 제국, -이것은 정교 국가이지요. 로마교와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성경적으로 철저하지 않는 기독교입니다.-을 괴롭힌 1299년부터 1449년까지라고 설명했습니다. 1299년 이슬람교의 오토만 제국을 건설한 오스만이 동로마의 니코메디아를 공격하였고 그때로부터 150년 동안, 즉 1449년 7월 27일까지 정교와 로마교를 괴롭힌 기간이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또 1838년에 장로교 목사인 조시아 리치 목사는 150년의 끝을 1449년으로 해석한 것을 토대로 하여 오토만 제국이 실제로 몰락한 연대를 해석했습니다. 그것은 여섯째 나팔에 나오는 년, 월, 일, 시를 해석한 것인데 그것이 1840년에 오토만 제국이 몰락한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오토만 터키는 이 기간 동안 13만 명의 배교자를 처형하고 500만 명을 죽였다고 하는데 그것이 전갈이 쏘는 것과 같은 괴로움으로 묘사된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서는 한 종교 저술가가 좀 자세히 기록했는데 좀 길지만 인용하면 “1840년에는 또 하나의 현저한 다른 예언이 성취되어 일반의 흥미를 일으켰다. 그 사건이 있기 2년 전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하는 한 유력한 목사인 조시아 리치는 오토만 제국의 몰락을 예언한 요한계시록 9장의 해석을 책으로 펴냈다. 그의 계산에 의하면, 그 제국은 ‘서기 1840년 8월의 어느 때’에 몰락될 것이었다. 또한 그는 그 일이 성취되기 수 일 전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처음 기간 곧 150년이 투르크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데아고제스의 즉위 전에 분명히 성취되고, 391년과 15일이 처음 기간이 마치는 동시에 시작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1840년 8월 11일이 된다. 그때에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오토만 제국의 국위(國威)가 몰락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나는 그 일이 분명히 그렇게 되리라고 믿는다.’ 과연 규명한 바와 조금도 어김이 없이 바로 그 때에 투르크는 그 사절들을 통하여 유럽의 동맹 국가들의 보호를 받기로 승인함으로 기독교 열강들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었다. 그 사건은 예언한 그대로 정확히 성취되었다.”(쟁투 334) 여기 투르크 라고 한 나라가 오토만 터키 제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섯 달 동안 전갈의 쏘는 것 같이 변질된 기독교를 심판 하셨습니다.

10. 예, 목사님, 다섯째 나팔이 어렵습니다. 이유는 우리들이 이슬람 역사에 대하여 전혀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그들은 지금도 기독교에 대하여 좋게 생각하지는 않지요. 시간이 되었으니 다음 시간에 계속하기로 하지요.

기도: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른 아침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강론 듣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이해하게 하여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의 정확함을 깨닫고 예언의 확실한 성취를 확인하면서 더욱 믿음으로 굳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 하나님의 인 맞은 사람들로써 충성하는 믿음으로 살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